



직원·고객에게 믿음주는 ‘백승프린팅’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인쇄사”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인쇄가 있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본지에서는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소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서울시 중구 필동에 위치한 백승프린팅이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2002년 설립된 백승프린팅(대표 백승룡)은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외부적으로는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인쇄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승룡 대표는 경영자가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직원들이 고객에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고 믿고 있다.

백승룡 대표는 “인쇄사는 2부제 등 다른 직종보다 근무환경이 좋지 않아 직원들이 자주 바뀌곤 한다. 우리 회사 근무여건은 다른 인쇄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인쇄사와 비교해 직원들이 장기근속하고 있다. 관리를 맡고 있는 김경철 부장의 경우 창업 멤버로 11년 동안, 양승진 기장과 신길호 기장 역시 각각 10년, 9년 동안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는 것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승룡 대표는 “직원들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 내가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직원들에게도 고객에게 백승프린팅에 대한 ‘믿음’을 주라고 강조한다. 백승룡 대표는 “고객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노력해야 한다. 납기일 준수 등 당연한 조건 외에도 고객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것에 신경써야 고객들이 감동한다”고 강조한다.

“내 나이 54세... 35년 동안 인쇄만 생각”

백승룡 대표는 올해 54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35년 동안 인쇄 한길만 걸어왔다. 전라남도 고흥의 시골에서 태어난 백승룡 대표는 1978년 고등학교 졸업 후 차비만 손에 쥔 채 대전으로 올라왔다. 친척 중 한 명이 대전일보 인쇄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터라 그 곳에서 활판인쇄 기술을 배웠다. 1년 정도 기능을 배우다 군대에 들어가서도 육군제7지구인쇄사에서 복무하면서 경인쇄, 마판, 제판 등을 배웠다. 전역 후에는 오프셋 인쇄를 배워 활판인쇄부터 오프셋인쇄까지 다양한 인쇄를 접하게 됐다.



1. 백승프린팅에서 작업한 다양한 인쇄물 2. 백승룡 대표는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쇄사에 근무했을 당시 생활은 너무나 어려웠다. 백승룡 대표는 가리봉동 쪽방에서 살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에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잠을 자면 저녁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등 24시간 동안 3명이 돌아가며 근무해야 했다. 백승룡 대표는 “당시 결혼은 했지만 집에 가지 못하고 인쇄사에 있는 쪽방에서 쪽잠을 자며 근무했다. 월요일에 출근하면 일요일 아침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당시 환경이 너무 열악해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면 안갈 것 같다”며 손사래를 쳤다. 이후 패션 카탈로그 전문 인쇄사인 ‘반프로’에서 15년 동안 근무하다 IMF 구제금융 이후 인쇄환경이 어려워지면서 퇴사해 백승프린팅을 창업하게 됐다.

학원인쇄물·아동문고 등 다양한 인쇄물 작업

미쓰비시 반절인쇄기를 보유한 백승프린팅은 위너스터디 등의 학원인쇄물, 교재, 글고은 아동문고, 사진집, 박물관 도록 등 다양한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고 있다.

백승룡 대표는 “인쇄경기가 좋았던 70~90년대까지는 인쇄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인쇄경기가 어려워진 2002년에 창업하게 됐다. 어렵게 시작해서인지 창업한 이후에도 큰 재미는 보지 못했다. 더구나 지금은 그때보다 인쇄경기가 많이 어려워져 고민이 많다.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현재 작업하고 있는 롯데백화점 쿠폰북을 2년 후에는 없앨 예정이라고 한다. 갈수록 인쇄물량이 줄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백승룡 대표는 “어떤 책에서 보니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100이라면 현실로 오는 것은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을 열심히 살 뿐이다”라며 긍정의 힘을 강조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백승룡 사장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1시간 정도 묵상하며 책을 읽는다. 성경 66권을 비롯해 매달 1권 이상의 책을 읽고 있어 1년이면 80권의 책을 읽는다. 백승룡 대표는 “예전에는 정치, 역사에 대한 책을 주로 읽었다면 최근에는 종교서

를 많이 읽고 있다. 최근에 읽은 ‘더 있다’라는 책은 종교서지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한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룡 대표는 3년 전만 하더라도 미래의 불안 때문에 우울한 현실에 많이 괴로웠다고 한다. 백승룡 대표는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삶이 힘드니 얼굴도 찡그린 인상이었다. 그러다가 독실한 그리스도교 신자인 딸의 계속되는 요구에 그래 한 번 가보자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다. 교회를 다니고, 아버지학교를 수료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 1남 1녀를 두고 있는데, 첫째 딸이 대한민국 육군대위로 근무하고 있다. 올해 5월 아들을 출산하는데, 손자를 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즐겁다. 이제는 삶은 힘들어도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인협, 장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대한인쇄문화협회 장학위원회는 이운경 대일코퍼레이션 사장이 기탁한 1억원과 동양잉크(대표 최대광)에서 매년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합쳐 인쇄학생들에게 ‘인쇄문화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위원회는 지난 2012년 첫 장학생을 선발해, 서울공고 그래픽아트과 학생 등 1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위원회는 김영철 두성칼라 대표를 위원장으로 백승룡 백승프린팅 대표, 배명수 (주)한성칼라 대표이사, 방운덕 삼성아이앤비(주) 대표이사, 이창래 (주)상지피앤아이 대표이사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백승룡 대표는 “장학금을 기탁해 인쇄 후진양성에 이바지하는 이운경 사장과 동양잉크 최대광 사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장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쇄발전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백승프린팅 연혁

2002년 8월 백승프린팅 설립

2008년 2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표창

2012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표창